나주시, 농약 허용물질관리제 대응 총력

미등록 잔류농약 기준 초과 땐 출하 연기·폐기에 과태료 부과
내년 전면 시행 앞두고 지역 농가 보호 위해 합동TF팀 운영

나주시는 내년 시행될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효율적인 대응 및 농가 관리를 위해 합동 T/F팀을 운영한다. 지난달 27일 이상목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재로 열린 PLS 대응 합동 T/F팀 회의.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효율적인 대응 및 농가 관리를 위해 합동 T/F팀을 구성·운영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등록되지 않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kg당 0.01mg로 일률 적용한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땅콩,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농산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도가 정한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적용해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와 더불어 생산농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가 손실 예방과 소비자 혼란 등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PLS 대응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T/F팀은 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나주시지회 등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정기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PLS 시행 대비 추진사항을 공유·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과 농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도 PLS제도 전면 시행에 대한 지역 농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T/F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혁신산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힘쓴다

나주시-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강인규 시장 "인력난 해소 총력"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6일 시청 이화실에서 혁신산단에 입주한 18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 해소 등 일자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이화실에서 혁신산단에 입주한 18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산단 입주기업의 조기안착을 위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인력채용 과정의 애로사항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시 일자리 정책실, 일자리지원센터 관계자, 기업 인사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11일 현재 혁신산단, 신도산단, 혁신도시 클러스터 등에 총 32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중 191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해 6000여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과 5500여 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냈다.

혁신산단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146개 기업 가운데 113개 기업이 분양(분양률 68%)했으며 이 중 49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당면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 인재와 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시책을 내실화 하는데 더욱 힘써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산업단지 등 관내 기업체 인력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산단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년희망버스 운영 등 일자리 시책 추진을 통해 기업 최대 고민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초·중생 미국 어학연수 올 여름방학도 실시

8년째 이어져…60명 15일 출국

나주시가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초·중생 미국 어학연수'가 올 여름방학에도 실시된다.

해외 어학연수는 지난 2011년부터 8년 연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 속에 우수 시책으로 평가받으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초·중학생 60명이 미국 현지에서 3주간 이뤄지는 '2018 여름방학 미국 어학연수' 참여를 위해 오는 15일 출국한다.

연수생 중 초등생 30명은 미국 서부 워싱턴주 '웨네치밸리대학'에서, 중학생 30명은 동부 메릴랜드주 '하워드커뮤니티대학'에서 각각 연수를 받게 된다. 연수가 실시되는 미국 현지 지역은 나주시와 국제교류를 추진 중인 자매도시 들이다.

연수비용은 초등생 520만원, 중학생은 570만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나주시가 전체 비용의 60%가까이를 지원한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을 위해 선발된 저소득 가구 학생 13명에 대한 연수경비는 나주시가 전액 부담키로 해 호평을 받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웨니치시 웨네치밸리대학과 하워드카운티 하워드커뮤니티대학에서 현지 ESL(제2 언어로서 영어)수업으로 이뤄지며 견문을 넓혀줄 주말 견학·문화체험 행사도 함께 실시된다.

중학생 연수가 이뤄지는 하워드커뮤니티 대학은 나주 공산면 출신인 유미호건 메릴랜드주지사 영부인이 고향 나주의 지역 인재 양성 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해당 대학을 나주시에 직접 추천한 곳으로 특별한 인연을 자랑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 대계'라는 소신으로 나주지역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학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복지 시책을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의회 의장 김선용·부의장 윤정근 의원

김선용 의장

윤정근 부의장

나주시의회는 최근 제206회 임시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선용(59·재선) 의원을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윤정근(64·재선) 의원이 뽑혔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허영우 의원, 총무위원장에는 김영덕 의원, 경제안전건설위원장에는 강영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선용 의장은 "나주 발전을 위해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동료 의원들의 소중한 의견과 경륜을 의정에 적극 반영해 발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 '나주 이야기' 공모 시상
시나리오 양동순씨·UCC부문 이병섭씨 대상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주이야기' 단편 시나리오 및 UCC 공모전 시상식 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전라도 정명 천 년 기념 '나주 이야기'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전라도 정명 천 년 기념사업 중 하나인 '나주이야기' 단편 시나리오 및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상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최종현 영화감독, (사)한국영화인 총연합회 광주시지회 관계자, 공모 수상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나주시 정명천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라도 정명 천 년의 해를 맞은 나주를 주제로 전 국민 대상 '단편 시나리오 및 UCC 영상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 기간 전국 각지에서 총 76편의 공모 작품이 접수돼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와 문화, 설화, 먹거리 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공모된 76편의 작품은 지난달 문성룡(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장, 이환경 작가, 장재기 영화감독 등 작품심사위원 7명의 심사를 거쳐 시나리오 부문 7개, UCC부문 5개 작품이 선정됐다.

단편 시나리오 부문 대상에는 양동순(경기 성남)씨의 '오늘의 곰탕')이, 최우수상에는 전영신(서울 노원)씨의 '봉쥬르 홍어'와 이가희(서울 송파)씨의 '다시역'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작인 '오늘의 곰탕'은 매일 레시피가 바뀌는 곰탕집을 찾아온 시각장애 여성과 주인 사내의 만남을 통해 가족애의 복원과 희망, 새로운 삶의 시작의 의미를 담은 단편 작품으로 나주 대표 먹거리인 곰탕을 소재로 깔끔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UCC영상부문에는 이병섭(광주 북구)씨의 '나주가 나르샤'가 대상을, 신운하(충남 아산), 박지은(나주 교동)씨의 '나주를 날다', '나주로 데이트 어떠세요' 영상 작품이 각각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드라마 용의눈물과 야인시대 극본 작가이자 이번 공모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환경 씨는 "전라도 정명 천 년, 나주의 역사에 부합하는 좋은 작품들이 기대 이상으로 출품되어 심사과정에 있어 상당한 고민과 숙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최종현 영화감독은 "영산강에 얽힌 설화, 왕건과 장화왕후 오 씨, 의병장 김천일, 광주학생운동의 시발점이 된 나주역 댕기머리 사건 등 풍부한 역사와 배, 홍어, 곰탕 등 대표 먹거리를 소재로 한 이야기의 대 만찬이었다"고 평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